

4년 연속 ‘산불 제로’ 도전...“초동진화 강화”

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올해 예산 63억원 투입
불법 소각 단속·AI 활용 감시 등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 연속 ‘산불 제로’ 달성을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 재난 총력 대응으로 국민 안전 수호’를 목표로 산불예방, 감시·예측, 산불대비, 산불대응, 사후관리·홍보 등 5단계로 나눠 약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발생에 대응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이후 산불 발생이 없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기간이 길어지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효율적인 진화자원 동원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산불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시 산림·농정·환경부서 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농업기술원 파쇄장비와 산림재난예방반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

쇄와 수거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도 확대한다. AI 기반 산불방지 ICT플랫폼과 연계해 24시간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해 산불 조망 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CCTV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감시원과 드론 감시단(32개단)을 운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 장착 헬기·드론으로 화선을 파악하고 강풍 시에는 군의 정찰기, 드론 등을 활용한다.

초동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휘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산불 대응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보고와 지휘 과정을 간소화

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한다.

대형 재난이 우려될 때는 단계 상관 없이 산림청장이 현장을 지휘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산불진화에 나선다. 또한 국유림관리소장과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출동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기존 539명 규모의 공중·특수진화대를 130명 추가하고 산불진화차도 76대 보강한다. 산림청·소방청 헬기가 우선 활용된 후 투입됐던 군 헬기도 즉응전력으로 편성해 초동진화 능력을 향상시켰다. 오소병기자

도, 올해 청년정책 1793억 투입... 101개 사업 추진
맞춤형 일자리·대학 연계 인재양성 초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년정책에 1793억원을 투입해 5개 분야·10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코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장업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벌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도 강화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21개 신규 과제를 추진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해 나간다.

아울러 제주도는 청년정책 참여 채널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청년이 모인 곳을 찾아가 듣는 ‘소통, 경청의 현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청년 분과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참여기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미래는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친화적인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오소병기자



감자 주산지 대정 들녘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겨울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김윤덕 국토부장관, JDC 등 공공기관 대상 2026년도 업무보고 “장기 지연사업 상황 도민에 정확히 알려야”

법적 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과 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정상화가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다.

18일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외청과 제

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장관은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사업 등 장기 지연사업에 대해 지역 내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해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2017년 개발이 중단된 이후 자금조달 곤란을 겪으며 공사가 8년째 정체된 상황이다.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

업은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 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원지 사업에서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JDC 차기 이사장의 핵심과제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주요 사업의 정상화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 양영철 이사장 당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 여부에 대해서도 차기 이사장이 결론을 내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도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JDC 관계자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2개 사업에 대해 사업 경과와 현황, 해결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장과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령성기자 yswi1968@ihalla.com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예방나무주사’ 추진 제주시 3억2000만원 투입해 구좌·우도 등 400ha 대상

제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우양 소나무림과 재선충병 피해 확산 우려 지역인 구좌읍·조천읍·우도면 일대 400ha를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방나무주사는 1회 시공으로 3~4년간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약제를 사용해 재선충은 물론 매개충까지 동시에 방제함으로써

장기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벌채목 무단 방치, 불법 이용 행위 등에 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박성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세계 습지의날’ 체험객 100명 모집

제주시가 오는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센터 일원에서 시민참여형 기념행사를 연다.

18일 시에 따르면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국제습지협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해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제정된 세계기념일이다.

이에 시는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슬로건인 ‘습지와 전통지식: 문화

유산의 기념’에 맞춰 제주 전통 물 관리 지혜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제주 전통 빗물 저장 방식인 ‘츰항 만들기’ ▷선흘리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도토리 칼국수 체험 ▷습지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백동산 습지 생태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사전 예약제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곤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